

## 오피니언

## 데스크 시각

박 치 경



새해 호남민의 최대 관심사는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만 하더라도 탕평은 구호였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이 다가오면서 이전 가장 중요한 실천과제가 됐다.

우선,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람이 탕평을 강조해온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부당한'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한 나라의 운영 요소는 국가적 권력을 행사하는 인력과 재화로 볼 수 있다. 권력을 지닌 사람의 편중과 생산성이 지역별로 기울어지면 심각한 국가적 불균형을 초래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지난 65년 대부분이 그랬고, 불행하게도 호남은 피해자였다.

## 곁다리 구색 맞춤은 역효과

과연 탕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먼저, 인사다. 호남은 (김대중 정부를 잠시 제외하고) 숱한 소외를 당해온 터여서 중앙부처 장·차관부터 지역 출신 인사를 많이 기용하는 것을 반증한다. 한나라당은 국정 운영 요소는 국가적 권력을 행사하는 인력과 재화로 볼 수 있다. 권력을 지닌 사람의 편중과 생산성이 지역별로 기울어지면 심각한 국가적 불균형을 초래한다.

인사탕평은 우선 숫자의 균형을 전제로 한다. 영호남 인구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고위관료의 영남 편중은 심각했다. 따라서 탕평의 가장 큰 관건은 고위직의 호남 소외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있다.

건국 이래 김영삼 정부까지 역대 장·차관(외장장 포함) 가운데 호남 출신은 11%대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임용된 장·차관급 행정관료 1551명

## '창조적 탕평'이라야 한다

기운데 영남 출신이 501명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했다. 반면, 호남은 184명으로 1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호남 출신 고위관료는 이승만 정권 8.1%, 박정희 정권 12.6%, 5·6공 12.6%, 김영삼 정권 14.7%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영남 출신 비율은 김영삼 정권 시절 한때 41.2%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다. 신안 출신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잠시 약진했던 호남 장·차관들은 노무현 정부 때 쇠퇴하더니 급기야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중요 실무자선까지 '가물에

콩 나듯' 할 정도가 됐다는 게 중론이다. 숫자만 맞춰진다고 되는 걸까? 성패는 '실세' 자리에 호남인사를 얼마나 배치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나라 행정의 특성상 기관별로 다른 부처 장·차관보다 더 힘 있는 세기관, 실·국장이 있다. 곁다리 장·차관 몇몇으로 생색내려 했다가는 뒤에 역효과다. 구색 맞추기 위해 급급했다가는 호남민의 자존심까지 맹들게 해 불신만 깊어질 뿐이다.

따라서 능력에 호남출신을 중용하고 능력에 맞춰 부처의 핵심 포스트들도 지역 출 출신을 배려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성장해 중주

적인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참된 인사탕평에 근접할 수 있다.

사람만으로 끌나지 않는다. 수십년 동안 뒤쳐졌던 호남인 만큼 '경제탕평'이 안 되면 반쪽짜리다. 지역의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마음을 녹이는 탕평이 가능하다.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당선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지역 한 문화계 인사는 장단식을 했다. "이제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의 원만한 완공은 물 건너 갔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통합당이 대통령 배출에 실패해 지역 핵심 숙원사업도 그만큼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에 있다. 역대 대선 결과, 특정지역 정권에 따라 반대지역 국비사업이 차질을 빚은 게 한 돌 아니다. 따라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문화전당 건립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걱정도 무리는 아니다.

## '경제탕평'까지 이뤄야 완성

전남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도 지난해 말 10년 만에 겨우 사업승인을 받고 올해 초 첫 삽을 뜨게 됐지만 앞길은 까마득하다. 가뜩이나 불경기에 정권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사업비 가운데 대부분인 1조를 메울 민간자본의 투자가 순조롭겠느냐는 우려가 앞선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대통령이 호남의 현안을 적극 해결하는 '경제탕평'에도 나서줄 것을 주문한다.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먹고사는 문제를 풀어주는 '창조적 탕평'에 밟았고 뛰어 영호남 경제력의 균형을 어느 정도는 맞춰달라는 요구다.

박근혜 당선인이 인사와 경제탕평으로 소외됐던 호남을 더 따뜻하게 안아야 하는 명분은 자명하다. 이전 한 정파의 대표가 아니라 오는 2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출발하니까...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 시설

## 박 당선인 공약사업 대부분 미반영되다니

국회가 1일 새벽 342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제택했다. 국회는 그동안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기는 '늦깎 처리'를 되풀이해 왔지만 해를 넘겨 예산안을 상정·처리하기는 현정 사상 처음이다.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기대했던 국민들로서는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갈등과 반목의 구태정치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하지만 전남도가 핵심사업으로 1000억 원의 예산 반영을 요구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개설 사업비와 프리운호페 분자생명공학 한국연구소 설립비는 단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위해 미반영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예산의 조기 및 적정 집행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내걸었던 대선 공약이 헛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전남도는 모두 6조2943억 원의 국비

## '무등산 국립공원' 광주 위상 강화 계기로

광주 무등산이 마침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지난 1972년 도립공원 지정 이후 40년 만에 국내 21번째 국립공원 지정으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1일 해미atsu 행사에는 예년보다 월씬 많은 1만2000여 명이 무등산을 찾아 국립공원 승격을 축하하는 광주의 분위기를 반영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정상 부근의 군부대 이전과 방송·통신 시설의 통합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지난 1966년부터 들어선 이를 시설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승격은 광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광주시는 무등산이 명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관심을 이끌어내고, 정부도 군부대 이전비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공원내 숲박·편의 시설 최소화와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되, 시민 재산권 침해에 따른 대책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영생을 위해 육신을 미라에서 미라 제작 보존했던 이집트인들은 미라 제작법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신성한 기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Herodotus)는 한 때 이집트에 머물렀던 경험을 되살려 미라 제작방법을 후세에 전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미라를 만드는 데는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죽은 자의 재산에

따라 결정된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시체가 잘 보존될수록 그만한 영생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3가지 종류 중 가장 비싼 것은, 뜻구멍에 기구를 집어넣어 뇌수를 끌어내고, 혈구리를 절개해 내장을 끄집어낸 뒤

집어낸 뒤 뇌 조직에 불암과 향료 등을 넣어 채우는 방법이다. 다만, 생각이 자

리 잡은 심장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 다음 짠 방법은 내장을 꺼내지 않은 채 삼나무 기름을 배에 집어넣어 내장을 녹여버리는 것이고, 가장 저렴한 것은 하제(下劑)를 써서 내장만 세척하는 방법이다.

최근 2400년 된 미라에서 미라 제작 시 뇌를 제거할 때 사용되는 고대 도구가 발견돼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크로아티아 두브라바 대학병원 연구진은 사망 당시 40세였던 여성의 미리를 연구하던 중 송진으로 가득 찬 원족 두정골과 뒤쪽 두개골 사이에서 7.6cm 길이의 기다란 갈고리를 발견했다.

미리를 제작하던 고대 이집트인들이

실수로 이 갈고리를 뇌에 남겨뒀다는게 연구진의 해석이다. 갈고리를

사용해 뇌수를 꺼내고, 또 빈 공간을 정성스럽게 송진으로 채워놓은 것을 보면, 수천년으로 놓은 이 여성은 상당한 부자였던 것 같다.

세하다. 청년의 꿈은 무르익고, 노년의 초조함은 가속된다.

무심히 흘러 만 가는 시간에 맞서 '미리'를 발명해 낸 것은, '필멸의 숙명'을 잡시나마 잊으려는 고대인의 지혜일 것이다.

'불멸의 존재'가 되기 위해 미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2400년 전 그녀의 믿음이 부럽다.

/홍행기 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 기고



김창근

1487년 포르투갈의 항해가 바르톨로뮤 디아스(Bartolomeu Dias)는 주왕2세로부터 인도양 항로 개척의 임무를 받고 항해를 떠난다. 아프리카 서쪽 해안을 끼고 남하하다 격렬한 폭풍우를 헤치고 해안선을 따라 동진하여, 마침내 해안선이 북쪽을 향해 구부러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디아스는 아프리카의 동쪽 해안을 따라 그대로 북상하자고 제안했지만 겁이 난 선원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되돌아오는 도중에 큰 곳을 만났는데, 가는 길에는 폭풍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데서 연유하여 폭풍의 곳(Cape of s-

## '중이조심' 씨 계세요?

없어서 좋단다. 물론 처음부터 수입이 좋았던 것은 아니고 십 년 정도 하다 보니 단골 손님 만드는 노하우가 생기더라고 한다. "큰 자본 없이 십 년 고생해서 생활을 벌 탈 없이 그 수입이 유지된다면 좋은 직업 아닌가?"고 반문한다. 나는 그 십 년의 노하우에 관심이 있다. 고객들과 웃으면서 관심 있는 대화를 하고, 심상한 약체만을 팔며, 다른 가게보다 덤을 더 주고, 장사 시종 시간은 꼭 지킨다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노점상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와 따뜻한 인간관계로 만 들어진 노하우였다.

과외를 하는 일 선생님이 "애들에게는 이십 년 노하우를 적용해도 안 먹혀요. 요즘에는 집상인들을 따돌리려면 대문에 '중이조심' 대신 '중2조심'이라고 써 붙인다고 하네요" 한다. 모두들 웃고 있는데, 학원 하는 진 선생이 "이제 외국인들이 중이조심 씨 계세

요? 하겠네"하며 또 웃긴다.

내가 임 선생에게 "한 명만 끼고 가르치는 과외선생도 어렵나?"고 했더니 "말도 마세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 애들이 더 싫해요!" 한다. 광주 사립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 모 교사는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걱정된다"고 했다.

광주 시 교육청이 최근 광주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2012년 학생 징계현황'에 따르면 무단결석, 음주, 흡연, 교사지도 불응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고등학생(943명)보다 중학생(1086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만 매월(방학제외) 200명이 넘는다. 심각한 것은 장계 현황 통계는 일선 학교 현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옳지 않은 행동을 방지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판단 기준도 없이 더 강하게 고, 더 자극적인 폐습을 일삼게 될 것이다.

사실 무단결석, 음주, 흡연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이 되면 범죄가 안 된다. 그러나 교사지도 불응 사례는 수업방해, 교사에 대한 폭언, 육설, 폭행 등은 다른 아이들에게나 폭언, 육설, 폭행 등은 다른 아이들에게나

개나 교사에게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 또 이처럼 학장시절에 습관이 된 그릇된 인간관계는 성인이 되어 가정과 사회질서를 어렵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이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징계를 받은 학생은 선진 외국처럼 격리해서 심리치료와 교과공부를 병행하도록 하고, 피해교사 또한 심성수련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학교와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인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좋은 대인관계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지 학생과 교사 국민 모두가 연찬하여 학의 도출된 결과물을 토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 한시비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수필가>

## '연어 프로젝트' 치럼 고용 유연성 대책 필요하다

현대카드사가 추진하는 '연어 프로젝트'가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내용인즉슨 연어가 어릴 적 태어난 곳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회사를 떠난 인재를 다시 불러들이자는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결과 직장을 옮긴 옛 직원 9명이 1월에 현대카드에 재입사하게 됐다고 한다. 모두 30~40대이며, 직급은 대리부터 차장급까지다.

현대카드가 간혹 명예퇴직하거나 정년 퇴임한 직원을 계약 직원으로 재고용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스스로 다른 회사로 떠난 젊은 직원을 한꺼번에 다시 데려오는 것은 매

보면 계획을 가지고 사표를 내는 경우보다 충동적으로 사표를 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떠나온 회사를 생각해보면 다시 돌아갈 수 없음에 회한과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인간다. 우리나라의 고용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진퇴를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현대카드의 연어프로젝트는 새로운 고용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능력만 있다면 어디든지 유연하게 채용이 되고 또 쉽게 전직할 수 있는 그런 고용환경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곧 새정부가 들어서는데 고용의 유연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민주·광주 남구 방림동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6282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 인쇄인 金汝松 譯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